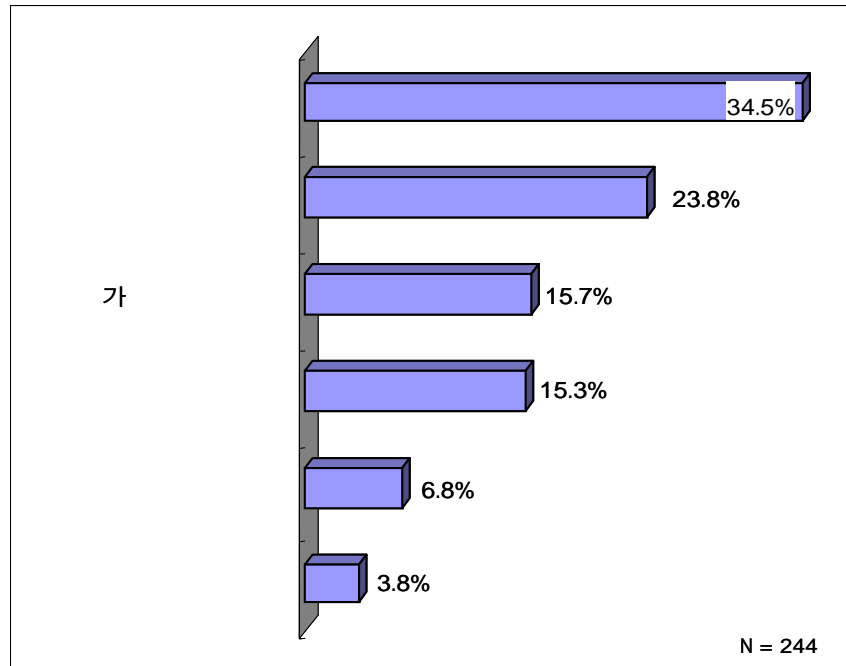


또한, 충남은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국가적인 생태관광지로서의 잠재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잠재적인 생태관광지로 서산의 천수

만 철새 도래지는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잠재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림 1> 2002 서산천수만철새기행전 방문객들의 방문동기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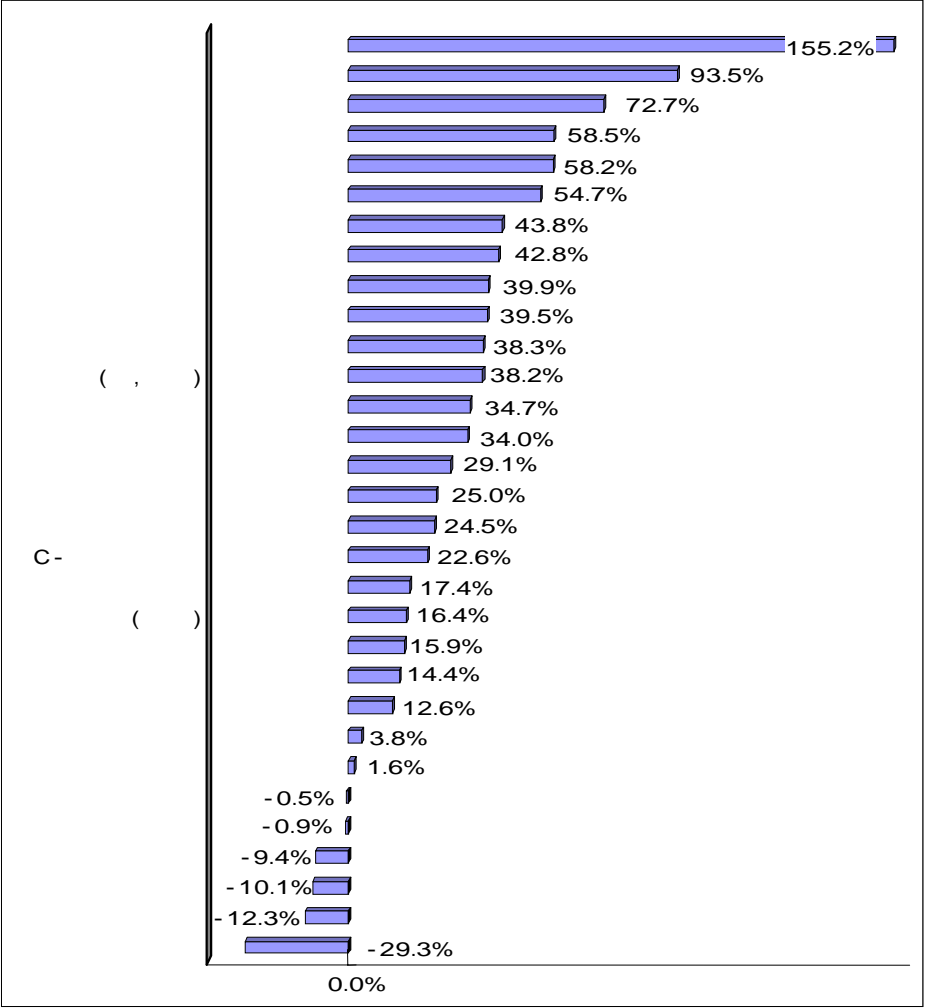


<자료> 서산시청, 「2002 서산천수만철새기행전 평가 및 발전방안연구」, 2003.

이러한 철새를 통한 생태관광은 차세대 유력한 관광패턴으로서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인터넷 예약 등으로 관광객 수를 통제하고 또 생태관광지역을 핵심 지역 또는 전이지역 등으로 나누어 생태관광자원의 보존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거나 경제력이 있는 관광객 그룹들을 유치해서 최근 10여년 동안 가장 급성장한 관광의 세부분야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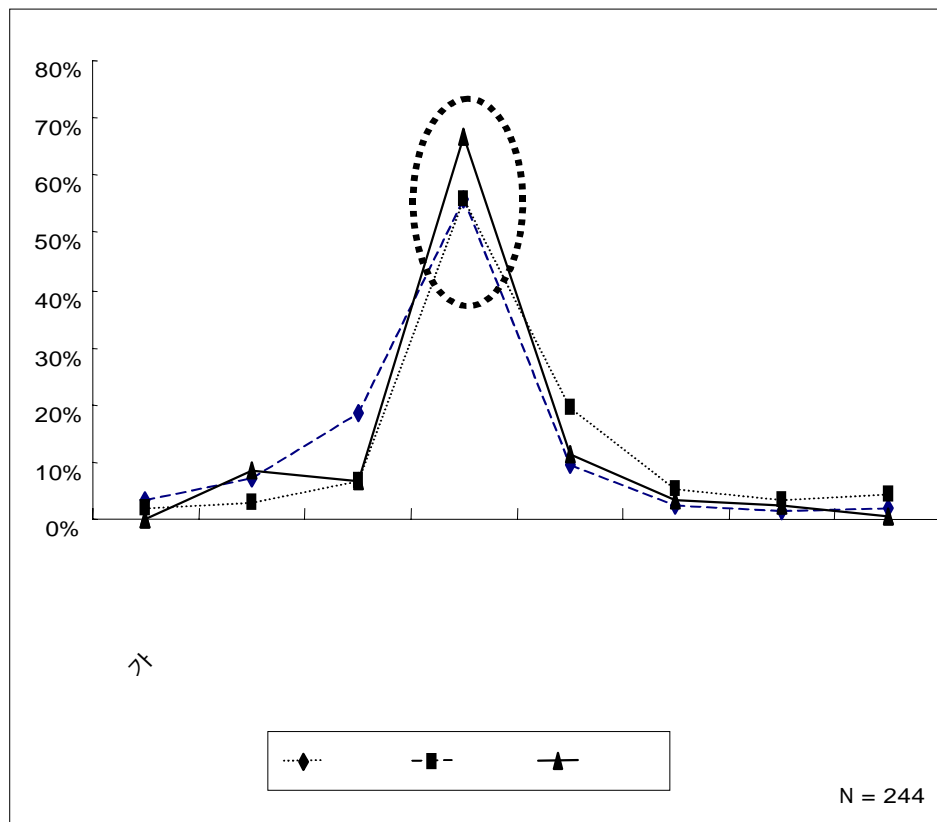
이에 우리 충남은 경남 창녕의 우포지역이나, 강원도 철원 지역에 버금가는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잠재력이 증명이 되어 충남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여길 수 있다.

<그림 2> 미국의 16세 이상 인구의 여가활동 추이: 1982~3년과 1994~6년 비교



자료: ABA,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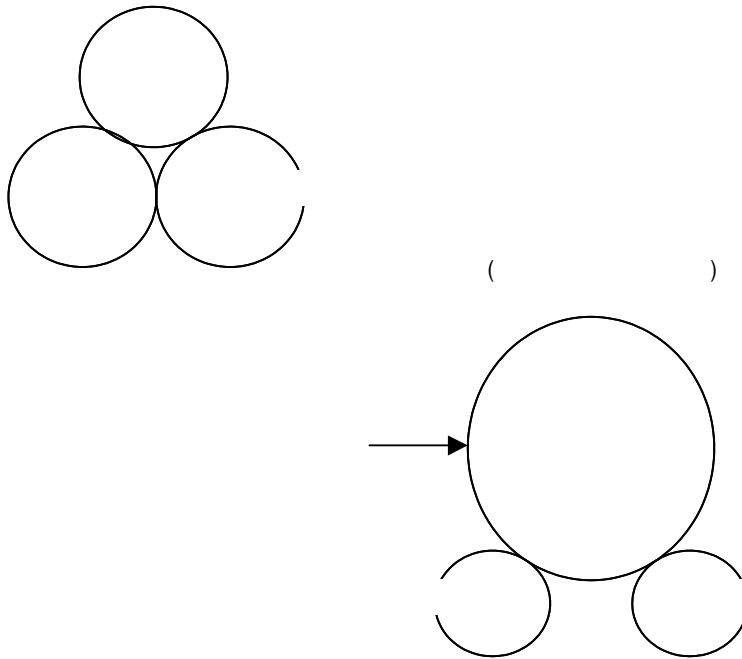
<그림 3> 2002 서산천수만철새기행전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자료> 서산시청, 「2002 서산천수만철새기행전 평가 및 발전방안연구」, 2003.

둘째로, 올해 ‘충남 방문의 해’라는 기회를 통해 각 시군이 잠재성있는 관광요소들을 특정시점으로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관광적인 관점에서 평상시 경쟁력이 미약한 요소들일지라도 많은 요소들을 특정 시점에 집중시킬 때 기대되는 관광과급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충남 홍성의 경우에는 매우 다양한 관광상품들이 산재해 있지만은 금산 인삼처럼 어느 특정한 아이템(Item)이 크게 부각되어있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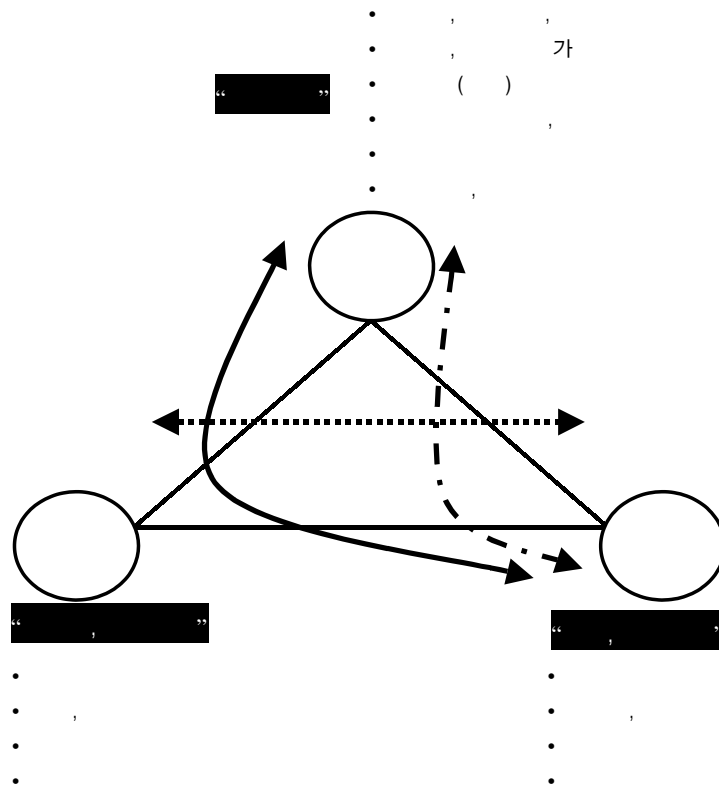
()



<자료> 홍성군청, 「홍주향토문화축제 개발연구」 2003.

그러므로 충남 홍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남당리 대하축제, 광천토굴 새우젓 축제, 한용운 선생을 테마로 한 만해제 등의 지역축제를 2003년도 ‘충남방문의 해’에는 10월 한달에 모두 집중시켜 ‘홍성 방문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함으로써 최소의 예산을 들여 관광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 10월 ‘홍성방문의 달’의 준비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보자면, 세 개의 축제 중 8월에 개최되고 있는 ‘만해제’만을 10월로 이전시키면서 이미 10월에 개최되고 있는 남당리 대하축제와 광천토굴새우젓축제와 함께 개최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프로그램 구성이 풍성하게 짜여져 있다는 분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축제 예산을 활용하여 홍성방문의 달을 활용하므로 이벤트 기획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림 6> 2003 10월 홍성방문의 달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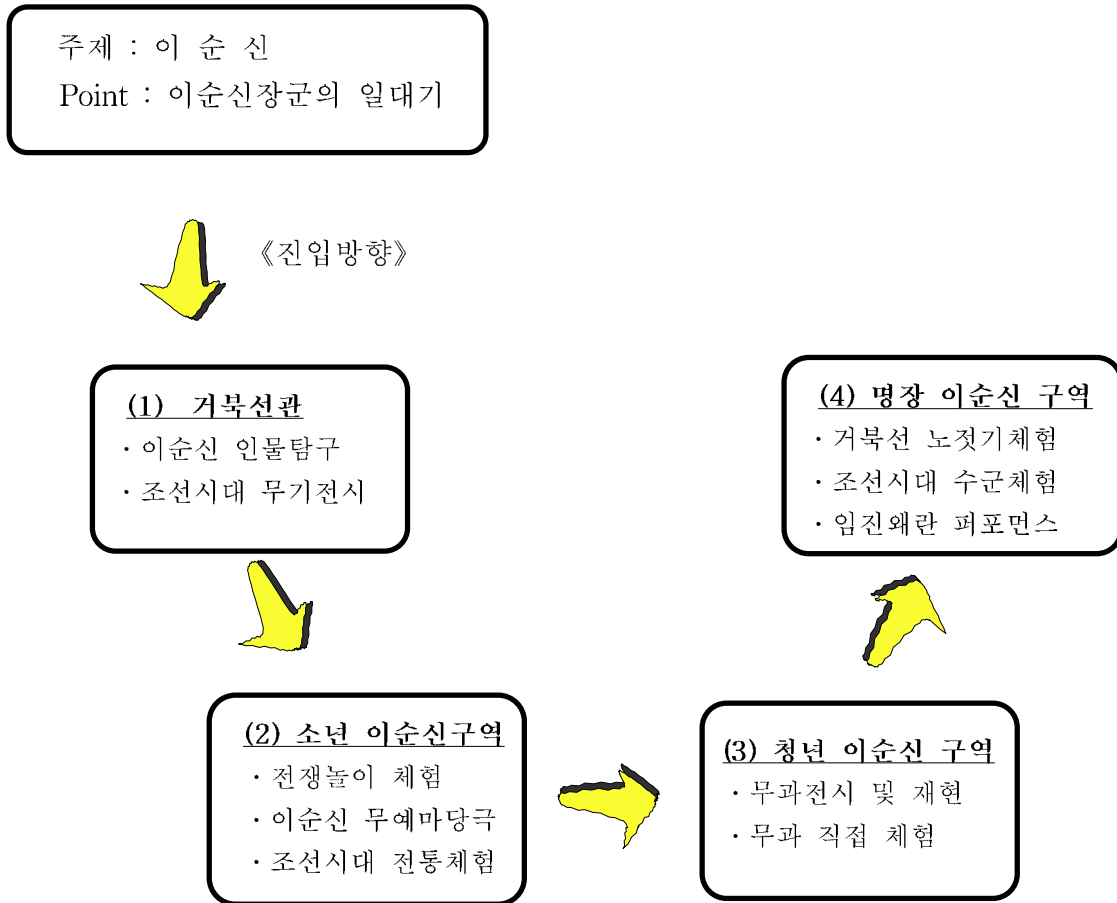


<자료> 홍성군청, 「홍주향토문화축제 개발연구」 2003.

셋째는, 충남 지역은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 낸 곳이고, 그러므로 역사 인물의 관광자원화 잠재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역사인물들의 문화유적화하는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관광자원화를 하지못해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다시말해서 기존의 인물들을 활용한 적극적인 관광상품화 노력은 아직 미비하고 그 이전단계인 문화유적(생사지복원, 기념비, 기념관건립)을 세우고, 추모식이나 제례식을 하는 등의 주로 엄숙한 부분의 문화화하는 접근노력으로만 시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역사적 인물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는 정체되어있는 역사인물 문화유적지 방문객 유치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들에 있어서도 성인들보다는 어린이 청소년층들이 역사인물들에 관심을 가지도록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만화,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캐릭터 개발 등을 한다거나, 인물관련한 교육관광이벤트를 구성하는 등의 인물관광 관광마케팅전략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충남 아산지역만 보더라도 성웅 이순신 장군은 물론, 청백리로 유명한

고불 맹사성 선생,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장영실 선생, 토정 이지함 선생 등이 관련돼 있는 역사인물관점에서도 관광잠재성이 높은 곳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잠재성을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예를 들면 아산의 ‘온양문화제’의 경우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축제이면서도 지금까지는 인물을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노력이 미진하였다. 그러나 올해 제42회 온양문화제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함께하는 온양문화제로 전환하여 프로그램을 구조조정하고 이순신 장군의 인물 스토리메이킹 기법을 시도하여 교육관광축제로의 발전잠재성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토리 메이킹 방식은 축제장을 축제방문객들이 자유롭게 돌면서 인물들의 일대기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은 편하고 즐겁게 보고, 즐기고, 체험하도록 구성된 기법으로서 온양문화제의 경우 이순신장군과 관련한 4개의 스토리메이킹 (Story-making)지역을 구성하였다. 첫째로 축제축제장 입구에 주제관을 설치하여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인물탐구, 조선시대의 무과, 무기의 소개 등으로 인물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외에도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세 개의 테마구역(소년 이순신구역, 청년 이순신구역, 명장 이순신구역)으로 나눠 운영하였다. ‘소년 이순신 구역’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어린시절을 묘사한 ‘이순신 무예마당극’, ‘전쟁놀이 체험’, ‘조선시대 전통문화체험’ 등으로 구성하였고, ‘청년 이순신 구역’은 이순신 장군이 무과 급제를 한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시대 무과전시를 재현하고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무과 체험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명장 이순신 구역’은 신비한 거북선을 체험할 수 있는 ‘거북선 노젓기 체험’, ‘조선시대 수군체험’을 구성하였고, 조선시대 관군과 일본군이 전투를 버리는 장면을 이벤트화한 ‘임진왜란 전투퍼포먼스’ 등을 구성하여 관광객들이 전체 네 개의 구역을 돌아보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스토리를 각 시대별 이벤트관람을 통해 저절로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구성방식을 채택했던 것이다. 따라서, 장영실, 맹사성, 이지함 선생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을 주제로 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도 위의 사례를 활용한 전략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제42회 온양문화제 스토리메이킹(story-making) 개념도



<자료>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 2002.

네 번째, 충남지역의 관광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광역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Synergy)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상품개발 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관광상품화가 가장 잘된 관광패키지 라인은 서울-경주-부산으로 연결되는 경부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경부라인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관광 패키지 라인을 충북 오성 바이오-대전 유성온천-충남 금산인삼- 전북 무주환경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부권의 '건강관광벨트'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잠재성 있는 패키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네 개의 건강 바이오 관련 테마들은 각기 다른 네 개의 광역 지자체로 분산되어 있어 관광패키지

로의 연계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광역 지자체간의 이기주의를 넘어선 연계 협력노력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때는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관광 매력적인 상품구성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다섯 번째, 업계에서도 충남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발전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종사원의 교육을 통한 1인이 다(多)역할 수행(Multi-role play)을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부분의 경우 관광종사원들은 특정한 단일 업무 수행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 비수기나, 경제불황에 따른 인력감축과 관광성수기에 효과적으로 수요대응을 하는 큰폭의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어느 호텔은 이러한 문제점을 다역할수행교육을 통해 극복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다역할수행교육으로 인하여 일본 미야기현의 한 호텔의 관촉지배인은 관촉업무 이외에도 공항영접 업무, 야간 쇼핑안내, 객실 안내 업무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충남의 관광활성화 방안으로서 관광종사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1인 다(多)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연성 있는 인력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섯번째로 충남지역은 1994년, 2001년 한국방문의 해가 그러했듯 충남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소자본을 투자하여 다양한 관광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벤트관광전략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다시말해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우 한정된 자본으로 투자대비 다양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지역축제 개선 및 문화관광자원화’가 시도되면서 지역축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소비적이고 예산낭비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지역개발적 차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벤트관광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이 이벤트관광의 전국적인 성공사례가 충남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가 충남지역에는 금산인삼축제, 보령머드축제, 서천한산모시문화제, 강경갯갈추제, 온양문화제 등 5개나 지정되어 있어 전국의 최다지정 사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성공사례의 하나로 간주되어진다. 금산인삼축제는 올해 2005년 금산인삼엑스포로 가기위한 준비토대를 쌓아야 한다. 보령머드축제는 머드체험랜드라는 대형 하드웨어시설 도입으로 중요한 발판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서천모시문화제는 모시특색화를, 온양문화제는 이순신장군의 인물 스토리메이킹 등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지정축제를 9개를 선정하여 지원육성하고 평가하고있는 점은 또하나의 발전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충남은 올해에도 적극적인 이벤트관광전략을 통해 지역 이미지 개선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지역문화의 발굴보존, 독특한

지역문화상품의 부가가치 창출, 또한 지역 내부적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응집력과 추진력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 「제42회 온양문화제 기획에 관한 연구」 2002.

홍성군청, 「홍주향토문화축제 개발연구」 2003.

서산시청, 「2002 서산천수만철새기행전 평가 및 발전방안연구」, 2003.

American Birding Association, 미국의 16세 이상 인구의 여가활동 추이: 1982~3년과 1994~6년 비교, 2002.